

문학 작품 속의 감정은유 번역  
- 개념적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본 ‘슬픔(哀)’과 ‘화(怒)’의  
한영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

김 순 영  
(동국대)

### 1. 서론

스넬-혼비(1995)에서 지적하듯이 번역 이론에서 은유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며, 뉴마크(1988)가 은유의 번역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다루기는 하였으나, 그 역시 은유 자체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은유 번역의 어려움이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유형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은유를 일상적인 언어표현이 아니라 특별한 수사적 장치로 간주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을 것이며, 임지룡(1996)에서는 이에 대해 은유를 ‘고전범주화의 원리에 어긋남으로써 선택제약에 일탈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지

---

\* 본 연구는 2006년 동국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언어학의 관점에서 ‘은유’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은유란 단지 낱말 수준의 의미 속성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사고 과정을 구성하는 개념적 속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레이코프와 존슨(1980)으로 대표되는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에 따르면, 은유는 추상적이고 비물리적인 ‘목표영역(target domain)’의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근원영역(source domain)’에 ‘사상(mapping)’하여 나타내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 방식이다. 은유에 대한 이 같은 새로운 이해는 그간 문화 및 언어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징(symbols)을 개념화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은유의 의미(sense)는 문화 특수적(culture-specific)인 것이며, 따라서 언어 간, 문화 간 전이의 과정인 번역에서 은유란 그 등가어를 찾기 어려운 골치 아픈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는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을 요하게 되었다. 즉, 은유의 번역은 더 이상 가능 혹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생활의 일부로써 출발언어 텍스트(ST)와 도착언어 텍스트(TT)의 언어 사용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개념 영역에 대한 이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한영 문학번역 텍스트에 사용된 감정은유 중 ‘슬픔’과 ‘화’의 표현을 중심으로 이들이 개념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은유표현들이 한영 번역에서 나타내는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먼저 ST와 TT에서 ‘슬픔’과 ‘화’의 감정이 은유적으로 개념화되는 방식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ST의 은유표현들이 TT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실제 예문을 통해 비교·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ST와 TT에서 동일한 근원영역을 설정하여 은유적 개념화를 달성하는 것이 은유표현의 의미뿐만 아니라 은유적 이미지의 전달에 효과적인 번역전략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2. 은유의 개념화: 부정적 감정, ‘슬픔’과 ‘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종류에는 그 분류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이나,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삶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 한다’는 표현에서와 같이

크게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의 네 가지를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본감정<sup>1)</sup>으로 인식해왔다. 감정은 기본적으로 몸을 통해 인식되는 것이나, 그 표현방식은 주로 언어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언어연구에서 감정의 문제가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인지언어학적 연구가 활성화된 20세기 후반의 일이다(임지룡, 2006: 3-5).

기본 감정은 크게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유형 및 분류 방식은 문화권과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기반으로 네 가지의 기본감정을 설정하고, 그 중 기쁨과 즐거움을 긍정적 감정으로, 슬픔과 화를 부정적 감정으로 나누고 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학자에 따라 기본감정의 유형 분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여섯 가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쁨(행복), 욕망(사랑)을 긍정적 감정으로, 슬픔, 화, 미움, 두려움을 부정적 감정으로 분류하고 있다(임지룡, 2006: 7-9).

【표 1】 동·서양 문화권의 기본 감정 분류

	동양 문화권	서양 문화권
부정적 감정	슬픔(哀) 화(怒)	슬픔(sadness) 화(anger) 미움(disgust/hate) 두려움(fear)
긍정적 감정	기쁨(喜) 즐거움(樂)	기쁨/행복(joy/happiness) 욕망/사랑(desire/love)

(임지룡, 2006: 7-9)

본 연구에서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모두 부정적 감정으로 분류하고 있는 ‘슬픔’과 ‘화’의 개념화 양상과 번역상의 특성을 위주로 은유의 개념화 방식을 고찰해보고, ST와 TT에서 동일한 근원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은유적 이미지의

1) 동양 문화권의 기본 감정 분류: a. 기쁨(喜), 화(怒), 슬픔(哀), 즐거움(樂) (中庸) b. 기쁨(喜), 화(怒), 슬픔(哀), 즐거움(樂), 사랑(愛), 악함(惡), 욕망(慾) (禮記).  
영어권의 기본 감정 분류: 행복(happiness), 슬픔(sadness), 화(anger), 두려움(fear), 욕망(desire), 미움(disgust), 임지룡 2006.

전달에 중요함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출발어와 도착어, 다시 말해 한국어와 영어에서 어떻게 은유적으로 개념화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 2.1 ‘슬픔’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

레이코프와 존슨(1980)이 제안한 개념적 은유 이론에 따르면 ‘은유’란 본질적으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와 개념의 문제이다. 즉, 은유란 “하나의 개념 영역을 또 다른 하나의 개념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커베체쉬, 2002: 4). 예를 들어, ‘논쟁은 전쟁이다’(AN ARGUMENT IS WAR)라는 개념 은유를 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목표영역, 즉, ‘논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경험을 근간으로 하는 근원영역, 즉, ‘전쟁’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통해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개념적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부정적 감정은유 중 하나인 ‘슬픔’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짚어보기로 하자. 다음은 네이버<sup>2)</sup> 백과사전에 올라있는 ‘슬픔’에 대한 설명이다.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호흡이 완만해지며, 안색이 창백해지고, 흔히 눈물을 흘린다. 그 발생은 먼저 우울증이 있거나 저항력이 약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경우로 특별한 불행이나 실패의 경험이 없는데도 가을에 비애를 느끼고 울기도 하는 것은 이에 속한다. 다음에 운명, 죽음, 마음의 깊은 상처 등 자극이 너무 강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비통이라고도 한다. 울거나 몸을 뜨는 신체적 반응을 수반한다. 슬플 때 사람은 자기 내부로 빠져들어 심한 경우는 자살까지 한다. 슬픔은 자기의 무력감이므로 인간에게 부정적(否定的)인 감정인 동시에 사물에 대한 허무감을 갖게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강조는 필자의 것임).

위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슬픔’의 개념화는 첫째,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호흡이 완만해지며,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물을 흘리는’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의해 파악하는 것과, 둘째, ‘(슬픔에) 빠져 드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감정인 ‘슬픔’을

2) www.naver.com 참조

구체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은유의 개념화이다. 임지룡(2006)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슬픔’을 은유적으로 개념화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어에서 ‘슬픔’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

근원영역	‘슬픔’의 은유 표현
슬픔은 그릇(容器) 속의 액체이다.	슬픔이 고이다, 슬픔을 부어놓다, 슬픔이 차오르다, 슬픔이 괴다, 슬픔이 서리다, 슬픔에 잠기다, 슬픔에 빠지다, 슬픔이 끓어오르다, 슬픔이 치밀다, 슬픔이 뜨겁게 솟아오르다, 슬픔이 샘솟듯 하다, 슬픔이 가라앉다.
슬픔은 적이다.	슬픔이 찾아오다, 슬픔이 엄습하다, 슬픔이 급습하다, 슬픔에 싸이다, 슬픔과 싸우다, 슬픔이 닥치다, 슬픔을 감당 못하다, 슬픔이 가슴을 찌르다, 슬픔에 사로잡히다, 슬픔에서 벗어나다.
슬픔은 물건이다.	슬픔이 크다, 슬픔이 무겁다, 슬픔이 가라앉다, 슬픔을 나누다, 슬픔을 덜어내다, 슬픔이 오가다, 슬픔을 던지다, 슬픔을 안겨주다.
슬픔은 식물이다.	슬픔을 심다, 슬픔을 복돋우다, 슬픔을 키워나가다
슬픔은 음식물이다.	슬픔을 맛보다, 슬픔을 곱씹다, 슬픔을 삼키다, 설움을 토하다, 슬픔을 되씹다, 슬픔을 먹어치우다, 슬픔을 삭이다.
슬픔은 강물·바닷물이다.	슬픔이 파도처럼, 슬픔이 조수처럼 밀려오다, 슬픔이 밀물처럼, 슬픔의 바다, 비애가 흐르다, 서러움이 물결치다, 슬픔이 차오르다.
슬픔은 폭풍우이다.	슬픔이 일다, 슬픔이 불어 닥치다, 슬픔이 휘몰아치다, 슬픔에 휩싸이다, 슬픔이 지나가다, 슬픔에 젖다, 슬픔이 가슴을 적시다, 서러움이 흘러내리다.
슬픔은 실이다.	슬픔을 자아내다
슬픔은 천이다.	슬픔을 짜다
슬픔은 질병이다.	슬픔을 치유하다
슬픔은 우는 아기이다.	슬픔을 달래다.

(임지룡, 2006: 220-3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슬픔’의 은유적 양상은 ‘그릇 속의 액체, 적, 물건, 식물, 음식물, 강물·바닷물, 폭풍우, 실, 천, 질병, 우는 아기’ 등 11개의 근

원영역에 의해 개념화된다. 그 중 ‘적, 그릇 속의 액체, 물건, 음식물·술’ 등이 일상적 체험에서 흔한 ‘슬픔’의 근원영역이다(임지룡, 2006).

커베체쉬(2000)는 영어권에서의 ‘슬픔(sad/sadness)’의 은유적 개념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3】 영어에서 ‘슬픔’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

근원영역	‘슬픔’의 은유 표현
SAD IS DOWN(슬픔은 아래이다.)	He brought me down with his remarks.
SAD IS DARK(슬픔은 어둡다.)	He is in a dark mood.
SADNESS IS A LACK OF HEAT(슬픔은 열의 부족이다.)	Losing his father put his fire out; he's been depressed for two years.
SADNESS IS A LACK OF VITALITY(슬픔은 생기의 부족이다.)	This was disheartening news.
SADNESS IS FLUID IN A CONTAINER(슬픔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	I am filled with sorrow.
SADNESS IS A PHYSICAL FORCE(슬픔은 물리적 힘이다.)	That was a terrible blow.
SADNESS IS NATURAL FORCE(슬픔은 자연력이다.)	Waves of depression came over him.
SADNESS IS AN ILLNESS(슬픔은 질병이다.)	She was heart-sick. Time heals all sorrows.
SADNESS IS INSANITY(슬픔은 정신병이다.)	He was insane with grief.
SADNESS IS A BURDEN(슬픔은 짐이다.)	He staggered under the pain.
SADNESS IS A LIVING ORGANISM(슬픔은 유기물이다.)	He drowned his sorrow in drink.
SADNESS IS A CAPTIVE ANIMAL(슬픔은 포획된 동물이다.)	His feelings of misery got out of hand.
SADNESS IS AN OPPONENT(슬픔은 적이다.)	He was seized by a fit of depression.
SADNESS IS A SOCIAL SUPERIOR(슬픔은 사회적 상급자다.)	She was ruled by sorrow.

(커베체쉬, 2000: 25-26)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와 영어에서 ‘슬픔’의 감정이 은유적으로 개념화되는 양상을 비교해 보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원영역을 기반으로 ‘슬픔’의 감정을 개념화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슬픔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는 영어의 SADNESS IS FLUID IN A CONTAINER와 동일한 근원영역에 속하며, ‘슬픔은 적이다’는 SADNESS IS AN OPPONENT와 동일한 근원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슬픔은 질병이다’의 경우에는 SADNESS IS AN ILLNESS와 동일한 근원영역을 기반으로 ‘슬픔’의 감정이 개념화된다. 그런가하면, ‘슬픔은 물건이다’는 SADNESS IS A BURDEN과 유사한 근원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슬픔은 강물·바닷물이다’나 ‘슬픔은 폭풍우이다’는 SADNESS IS NATURAL FORCE와 유사한 근원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유의 개념화 양상에서 한국어와 영어에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원영역을 바탕으로 은유적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번역의 관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ST의 은유를 TT로 번역하는데 있어 추상적 개념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원영역으로 사상할 수 있다면, 텍스트의 의미와 더불어 은유적 이미지까지도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기본감정 중 다른 하나인 ‘화’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 2.2 ‘화’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

‘슬픔’과 더불어 대표적인 부정적 기본감정을 구성하고 있는 ‘화’ 역시 ‘슬픔’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부 및 외부의 생리적 반응 또는 우리의 구체적 체험에 바탕을 둔 근원영역을 바탕으로 개념화한 은유의 기제를 빌려 표현된다.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기반을 둔 언어 표현으로는 ‘얼굴이 굳어지다,’ ‘얼굴을 찌푸리다,’ ‘얼굴이 벌개지다,’ ‘피가 솟구치다,’ ‘이마에 핏대를 세우다’ 등과 같이 신체 외부의 변화에 바탕을 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비위가 상하다,’ ‘배알이 틀리다,’ ‘창자가 뒤틀리다’ 등과 같이 신체 내부의 생리적 반응에 기반을 둔 표현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화’는 무엇인가라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익숙하고 구체적인 근원영역의 체험을 바탕으로 낯설고 추상적인 목표

영역을 개념화하는 은유적 양상은 다음과 같은 언어표현으로 나타난다(임지룡, 2006: 69-81)

【표4】 한국어에서 ‘화’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

근원영역	‘화’의 은유 표현
화는 그릇 속의 액체이다.	가슴에 분노가 고이다, 얼굴에 노기가 서리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다, 화가 부글거리다, 화가 치밀다, 화가 머리끝/머리꼭지까지 치솟다.
화는 적이다.	화를 누르다, (울)화를 억누르다, 분노를 누르기 어렵다, 분노가 꿈틀거리다, 분노가 고개를 들고 일어서다, 분노를 못 이기다, 분노에 사로잡히다.
화는 물건이다.	노여움을 사다, 분노를 보태다, 노여움을 더하다, 분노를 간직하다, 화를 견잡지 못하다, 노여움을 거두다.
화는 식물이다.	분노의 뿌리가 깊다, 화가 돋다, 화가 돋아나다, 화가 돌아 오르다, 분노를 키우다.
화는 음식물이다.	성을 머금다, 분노를 삼키다, 화를 내뿜다, 울화를 토해 내다.
화는 강물·바닷물이다.	분노의 파도, 분노가 파도로 일어나, 성난 파도처럼, 노여움이 일다, 분노로 소용돌이치다
화는 폭풍우이다.	노여움이 빗발치다, 분노가 온몸을 휩싸다, 분노에 휩싸이다
화는 화덕 속의 불이다.	간에 천불이 나다, 가슴에서 타는 분노의 불길, 가슴에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다, 역정이 열화같이 나다, 분노가 사그라들다
무기·흉기	분노를 숫돌에 갈다
끈	화를 풀다, 화가 풀리다, 분노가 풀어지다
실	분노를 자아내다

(임지룡, 2006: 70-80).

한국어에서 ‘화’의 은유적 양상은 ‘그릇 속의 액체, 적, 물건, 식물, 음식물, 강물, 바닷물, 폭풍우, 불, 무기·흉기, 끈, 실’의 11가지에 의해서 개념화되며, 그 중 ‘그릇 속의 액체, 적, 불’ 등이 일상적 체험에서 혼한 ‘화’ 근원영역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커베체쉬(2000)에 근거한 영어권에서의 ‘화(anger)’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이다.

【표5】 영어에서 ‘화’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

근원영역	‘화’의 은유 표현
ANGER IS A HOT FLUID IN A CONTAINER. (화는 그릇 속의 뜨거운 유체이다.)	She is boiling with anger.
ANGER IS FIRE. (화는 불이다.)	He's doing a slow burn.
ANGER IS INSANITY. (화는 정신병이다.)	The man was insane with rage.
ANGER IS AN OPPONENT IN A STRUGGLE. (화는 전투중인 적이다.)	I was struggling with my anger.
ANGER IS A CAPTIVE ANIMAL. (화는 포획된 동물이다.)	He unleashed his anger.
ANGER IS A BURDEN. (화는 짐이다.)	I was struggling with my anger.
ANGRY BEHAVIOR IS AGGRESSIVE ANIMAL BEHAVIOR. (화난 행동은 공격적인 동물 행동이다.)	Don't snarl at me!
THE CAUSE OF ANGER IS TRESPASSING. (화의 원인은 침입이다.)	Here I draw the line.
THE CAUSE OF ANGER IS PHYSICAL ANNOYANCE. (화의 원인은 물리적 성가심이다.)	He's a pain in the neck.
ANGER IS A NATURAL FORCE. (화는 자연력이다.)	It was a stormy meeting.
AN ANGRY PERSON IS FUNCTIONING MACHINE. (화난 사람은 작동중인 기계다.)	That really got him going.
ANGER IS A SOCIAL SUPERIOR. (화는 사회적 상급자다.)	His actions were completely governed by anger.

(커베체쉬, 2000: 21)

‘슬픔’의 은유적 개념화 과정에서의와 마찬가지로 ‘화’의 개념화에 있어서도 한국어와 영어에 유사한 근원영역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화는 그릇 속의 액체이다’는 영어에서 ANGER IS A HOT FLUID IN A CONTAINER와 동일한 근원영역에 속하며, ‘화는 적이다’는 ANGER IS AN OPPONENT IN A

STRUGGLE과 동일한 근원영역에 속한다. 또한, ‘화는 강물·바닷물이다’와 ‘화는 폭풍우이다’는 영어의 ANGER IS A NATURAL FORCE와 동일한 근원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한국어에서는 ‘화는 식물이다’의 경우처럼 적극적인 행위는 나타나지 않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개념인 ‘식물’에 근원영역이 설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영어에서는 ANGRY BEHAVIOR IS AGGRESSIVE ANIMAL BEHAVIOR나 ANGER IS A CAPTIVE ANIMAL처럼 동작과 행위에 주안점이 있는 ‘동물’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감정의 은유적 개념화 과정에서 ST와 TT 문화에서 근원영역의 설정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것은 은유적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번역 전략의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은유란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구체적인 근원영역에 사상하여 개념화하는 표현방식이므로, 한 개념이 ST와 TT에서 어떤 근원영역으로 개념화되는가에 따라 목표영역의 표현방식이 달라질 것이며, 그를 통해 전달되는 은유적 이미지 역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3. 한영 문학번역 텍스트를 통해 본 은유의 개념화 양상

임지룡(2006)과 커베체쉬(2000)에 기반하여 살펴본 한국어와 영어에서의 부정적 감정, ‘슬픔’과 ‘화’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토대로 하여 실제 한영 문학 작품에서 은유표현의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검토한 작품은 한국어로 쓰인 단편소설 4종과 그 번역본으로, 은유표현의 추출은 대조분석의 방식을 취했다. 분석에 쓰인 작품은 조정래 作 『유형의 땅』과 그 번역본 *The Land of the Banished*, 최인호 作 『깊고 푸른 밤』과 그 번역본 *Deep Blue Night*, 이균영 作 『어두운 기억의 저편』과 그 번역본 *The Other Side of Dark Remembrance*, 조세희 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그 번역본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 이다.

이 중에서 텍스트의 서사구조상 감정표현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작품은 『유형의 땅』과 『깊고 푸른 밤』으로, 전자의 경우는 ‘슬픔’과 ‘화’, 후자의 경우는 ‘화(분노)’가 텍스트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슬픔’의 감정을 가장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조정래 作 『유형의 땅』은 국토의 분단이 빚은 민족의 비극을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이며, ‘화’의 감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최인호 作 『깊고 푸른 밤』은 ‘분노’로 가득찬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1980년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다. 따라서 서사구조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감정은유의 번역이 작품 전체의 이야기 전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부분의 감정은유 표현 용례 역시 이 두 작품에서 추출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 3.1 ‘슬픔’의 은유 번역

다음의 예문들은 분석대상 텍스트들 중에서 추출해낸 ‘슬픔’의 은유 표현들이다. 첫 번째 예문은 ST와 TT의 은유표현이 서로 다른 근원영역을 통해 개념화되고 있는 예이다.

(1) ST: 그런 아이늬의 물골을 보자 새로운 서러움이 영감의 가슴을 찢었다.

TT: At the sight of him, the old man was plunged once more into sorrow.

(조정래 作 『유형의 땅』 중에서)

예문 (1)의 ST에서 추상적인 개념인 목표영역의 ‘서러움(슬픔)’은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적’이라는 보다 구체화된 개념, 즉, ‘슬픔은 적이다’라는 근원영역에 사상되어 은유적으로 개념화되었다. 이를 통해, ‘서러움’은 주인공인 영감의 가슴을 찢어놓는 ‘적’ 또는 ‘가해자’가 되고, 영감은 ‘피해자’가 되는 이미지가 발생한다. 반면에 TT에서의 ‘슬픔’은 SADNESS IS A FLUID IN A CONTAINER(슬픔은 그릇 속의 액체이다)라는 근원영역에 사상되어, 슬픔과 주인공인 영감의 관계는 가해자-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그릇 속의 액체에 풍덩 빠지는’ 이미지를 차용한 은유가 발생한다. 영어에서도 ‘SADNESS IS AN OPPONENT(슬픔은 적이다)’라는 은유적 개념화의 근원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번역 전략의 관점에서 ‘슬픔’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등가의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은유표현의 번역을 위해

동일한 근원영역을 설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ST와 TT에서 서로 다른 근원영역을 통해 은유를 개념화하고 있는 예를 한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하자.

(2) ST: “알고 있어요. 명희 생각을 하면 가슴이 메어져요.”

TT: I understand. The thought of Myung-hui still breaks my heart.

(조세희 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중에서)

예문(2)에서 ‘가슴이 메어지다’의 원래 표현은 ‘가슴이 미어지다’로, ‘미어지다’는 사전적으로 ‘종이나 가죽 같은 것이 해져서 구멍이 나다’로 정의된다. 이에 따르면, ST에서의 ‘슬픔’은 ‘슬픔은 천이다’라는 근원영역에 사상되어 ‘해어지고,’ ‘났아서 구멍이 날’ 정도의 구체적 대상으로 개념화되어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TT에서는 ‘슬픔’이 마음을 찢어놓거나 혹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개념화되었다. 예문(1)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슬픔’의 은유적 개념화 과정에서 ST의 경우는 ‘수동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TT의 경우는 ‘물리적 힘’으로서의 적극성 혹은 행위성이 강화되는 이미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문(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의 은유표현과 TT의 은유표현이 서로 다른 근원영역을 통해 개념화되는 경우 은유의 의미는 전달이 되지만, 그로 인해 생성되는 은유적 이미지는 ST와 TT에서 등가를 이루기 어려워진다.

ST와 TT가 동일한 근원영역을 통해 은유적 개념화를 달성하는 아래의 경우를 살펴보자.

(3) ST: 영감은 주체할 수 없이 솟구치는 울음의 덩이를 목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삼키며 손가락을 내밀었다.

TT: The old man offered his finger, swallowing the lump that was rising in his throat.

(조정래 作 『유형의 땅』중에서)

예문(3)의 ST에서 ‘울음의 덩이(슬픔)’은 삼킬 수 있는 구체적 대상, 즉, ‘슬픔은 음식이다’라는 근원영역에 사상되어 표현되고 있다. TT에서도 ‘슬픔’은 ‘삼

킬 수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 개념화되어 표현되고 있어, ST와 TT가 동일한 근원영역을 통해 은유표현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개념화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근원영역이 설정됨으로써 예문(1)이나 (2)에서와는 달리 은유표현의 이미지 역시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다음의 경우처럼 ST에서는 '슬픔'의 감정이 구체적 근원영역을 통해 은유적으로 개념화되었으나, TT에서는 은유적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 (4) ST: 가슴 저 깊이로 서러움 한 줄기가 싸늘하게 뻗어나갔다.  
 TT: For a second the old man was at a loss for words.  
 (조정래 作 『유형의 땅』중에서)

예문(4)의 ST에서 '서러움(슬픔)'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나가는 '식물'을 근원영역으로 하여 은유적으로 개념화되었다. 반면에 TT에서는 이러한 근원영역을 통한 개념화가 사라짐으로써 ST와 동일한 이미지의 생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예를 한 가지 더 살펴보자.

- (5) ST: 영감은 입 언저리에 울음을 가득 물고는 변명처럼 말했다.  
 TT: The old man was on the verge of weeping as he offered his feeble excuse.  
 (조정래 作 『유형의 땅』중에서)

예문(5)의 ST는 '울음(슬픔)'을 음식이라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반영한 근원영역으로 개념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TT에서는 이러한 은유의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문(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T와 동일한 이미지의 생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학작품의 번역에 있어서는 텍스트가 표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은유 등과 같은 기제를 통해 생성되는 이미지 전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ST와 TT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등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ST와 TT에서 동일한 은유적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은유적 개념화의 근원영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2 '화'의 은유 번역

다음으로는 '화'의 은유적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슬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조분석의 방식으로 추출해낸 예문들이다.

- (6) ST: 애초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적의는 준호의 탓이 아니었다.
- TT: It wasn't Jun-ho's fault, that simmering rage and hostility he himself had felt from the very beginning.
- (최인호 作 『깊고 푸른 밤』 중에서)

예문(6)의 ST에서 '분노(화)'는 가열하면 끓어오를 수 있는 '그릇 속의 액체'라는 근원영역으로 개념화되었다. TT 역시 ANGER IS A HOT FLUID IN A CONTAINER(화는 그릇 속의 뜨거운 유체이다)라는 근원영역을 통해 '분노'의 감정을 개념화함으로써 ST와 TT 모두 동일한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있다. ST와 TT의 근원영역이 같아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예를 좀 더 살펴보자.

- (7) ST: 그러나 참을 수 없는 분노는 더 이상 긴장과 자제로서도 눌러 진 정시킬 수가 없었다.
- TT: But he could no longer check or suppress this unbearable hatred.
- (최인호 作 『깊고 푸른 밤』 중에서)

예문(7)의 ST에서 '분노(화)'는 '화는 적이다'라는 근원영역에 사상되어 눌러 이겨야 할 대상으로 개념화되었으며, TT에서도 ANGER IS AN OPPONENT IN A STRUGGLE(화는 전투중인 적이다)라는 근원영역에 사상되어 억압하고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 (8) ST: 영감의 가슴에서는 다시 불길 같은 증오가 타올랐다.
- TT: A flame of hatred came alive within him once again, just as it had in those days.
- (조정래 作 『유형의 땅』 중에서)

예문(8) 역시 ST와 TT가 동일한 근원영역, 즉, '화는 화덕 속의 불이다'와

ANGER IS FIRE(화는 불이다)를 통해 개념화된 경우로, 예문(6), (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T와 TT에서 모두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다.

ST와 TT가 서로 다른 근원영역을 상징함으로써 ‘화’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9) ST: 분노를 참을 만한 절제는 나사가 풀려 그의 용솨음치는 분노의 힘을 감당치 못하고 있었다.

TT: The screws of the self-restraint that might have checked that anger loosened, and he was powerless before the rage that gushed out.

(최인호 作 『깊고 푸른 밤』 중에서)

예문(9)의 ST에서 ‘분노(화)’는 억누르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적’이라는 근원영역에 사상되어 개념화되었으며, TT에서는 ANGER IS A HOT FLUID IN A CONTAINER(화는 그릇 속의 뜨거운 유체이다)라는 근원영역을 통해 안에서부터 분출되는 화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원영역의 설정에 따라 은유로 인해 생성되는 이미지는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두 예문을 살펴보자.

(10) ST: 속았다는 분노가 창밖에서 마누라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보다 더 뜨겁게 전신을 터져 나왔다.

TT: His rage at this breach of trust was even greater than that he had felt at recognizing his wife's face from the window.

(조정래 作 『유형의 땅』 중에서)

(11) ST: 그는 이제야 조금 화가 치밀었으므로 마음속으로 그를 향해 그러한 질문들을 던졌다.

TT: He cast these questions to himself, for he was now beginning to feel some anger at last.

(이균영 作 『어두운 기억의 저편』 중에서)

예문(10)과 (11)의 ST는 추상적인 목표영역의 개념인 ‘분노(화)’의 감정을 ‘화는

그릇 속의 액체'라는 근원영역에 사상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는 뜨거워져 용기 밖으로 터져 나오거나, 뜨겁게 달구어져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되었다. 반면에 추상적인 개념을 사상하여 전달할 근원영역을 설정하지 않은 TT에서는 ST와 같은 감정은유의 이미지는 생성되지 않았다.

#### 4. 결론

'슬픔'과 '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 분류되고 있는 부정적 감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부정적 감정들이 한영 번역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은유적으로 개념화되는가를 개념적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어 원본과 영어 번역본을 대조분석의 방식으로 비교하여 추출해 낸 예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정적 감정은유의 번역에는 크게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추상적인 목표영역의 개념이 ST와 TT에서 동일한 근원영역에 사상되어 은유적으로 개념화되는 경우로, 이 방식의 번역에서는 감정은유의 의미뿐만 아니라 ST와 TT에서 동일한 은유적 이미지가 생성된다. 두 번째는 추상적인 목표영역의 개념이 ST와 TT에서 서로 다른 근원영역에 사상되어 은유적으로 개념화되는 경우로, ST와 TT에서 생성되는 은유적 이미지는 동일하지 않다. 세 번째는 ST에서는 추상적인 목표영역의 개념을 구체적인 근원영역에 사상하여 은유적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TT에서는 근원영역의 설정 없이 일반화된 표현으로 번역하는 경우로, 감정은유의 이미지가 발생하는 ST와는 달리 TT에서는 은유적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ST와 TT가 동일한 근원영역을 통해 은유적 개념화를 이루는 첫 번째 방식은 감정은유의 의미뿐만 아니라 동일한 은유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텍스트가 표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은유 등과 같은 기제를 통해 생성되는 이미지의 전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학작품의 번역에 있어서는 특히 이러한 번역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로 쓰인 네 편의 단편소설과 각각의 영역본을 분석대상

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양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은유의 의미뿐만 아니라 은유적 이미지의 전달이 중요한 문학작품의 번역에서 ST와 TT에서의 은유적 개념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번역 전략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개념적 은유 이론에 바탕을 둔 접근법은 은유가 문필가나 시인들만을 위한 장식적 언어가 아니라 일상적 언어생활의 일부라는 데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은유의 번역이 단순히 어휘나 구, 또는 문장 차원의 등가 찾기가 아니라 은유화되어 전달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생성되는 은유적 이미지의 전달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는 작업이며, 개념적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김순영. 2005. 「은유표현의 풀어서 번역하기 방식이 SL과 TL의 맥락효과에 미치는 영향—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영어영문학연구』 47:3, 87-101.
- 임지룡. 1996. 「은유의 인지언어학적 의미분석」. 『국어교육연구』 28, 117-150.
- \_\_\_\_\_. 2001a. 「‘기쁨’과 ‘슬픔’의 개념화 양상」. 『국어학』 37, 219-249.
- \_\_\_\_\_. 2001b. 「‘미움’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73, 173-201.
- \_\_\_\_\_. 2002. 「기본 감정 표현의 은유화 양상 연구」. 『한국어학』 17, 135-162.
- \_\_\_\_\_. 2006. 『말하는 몸』. 서울: 한국문화사.
- Kövecses, Zoltan. 2000.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New York: Cambridge UP.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eorge.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P.
- Newmark, Peter. 1988. *A Text Book of Translation*. London: Prentice Hall.

Schäffner, Christina. 2004. "Metaphor and translation: some implications of a cognitive approach," in *Journal of Pragmatics* 36(7), 1253-1269.

#### 분석대상 텍스트

ST: 이균영. 『어두운 기억의 저편』. 1984년도 이상문학상 작품집.

TT: Ahn, Jung-hyo. 2002. *The Other Side of Dark Remembrance*. Seoul: Jimoondang.

ST: 조세희. 2002.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sup>3)</sup>. 이성과 힘.

TT: Chun, Kyung-ja. 2002.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 Seoul: Jimoondang

ST: 조정래. 『유형의 땅』. 20세기 한국소설 32집.

TT: Chun, Kyung-ja. 2001. *The Land of the Banished*. Seoul: Jimoondang.

ST: 최인호. 『깊고 푸른 밤』. 1982년도 이상문학상 작품집.

TT: Bruce and Ju-Chan Fulton. 2002. *Deep Blue Night*. Seoul: Jimoondang.

---

3) 1976년 연작소설의 형태로 출간되었으며, 본고에서는 2002년에 ‘이성과 힘’ 출판사에  
서 묶어낸 소설집을 참고로 하였음.

[Abstract]

**The translation of emotion metaphors in literary texts: Korean into English translation of ‘sadness’ and ‘anger’ from the perspective of conceptual metaphor theory**

Kim, Soonyoung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negative emotion metaphors are conceptualized and translated in literary texts from Korean into English. It also tries to make a suggestion that a conceptual approach may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translation strategy for emotion metaphor. A brief discussion of previous and current views on metaphor establishes some perspective on the subject. The Conceptual Metaphor Theory presented by Lakoff and Johnson(1980) forms basic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paper. Lim(2006) and Kövecses(2000) provide further theoretical background as well as classifications of metaphor conceptualization in Korean and in English respectively. The conceptualization of ‘sadness’ and ‘anger’ in source texts and their renderings in target texts are compared in an attempt to identify significant features of emotion metaphor translat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metaphors are conceptualized and translated in three ways: mapping onto the same source domain as the source text, creating the same metaphorical image in ST and TT; mapping onto different source domain, creating different metaphorical image in ST and TT; and translating into paraphrased words instead of using the conceptual source domain. Based on the findings the paper came to a conclusion that conceptualizations of emotion metaphors onto the same source domain in ST and TT would contribute to transferring metaphoric image as well as its sense.

▶ Key Words: anger, conceptual metaphor theory, emotion metaphor, sadness, metaphoric image

김순영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전공 조교수

kimsy@dongguk.edu

관심분야: 번역학 (번역이론)

논문투고일: 2008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12일